

ksruby 패키지

Noname

2019/05/22, v0.0 β

1. Xe_{La}T_EX에서, 한글 문서에 루비 문자(또는 그 아류)를 쓰려 할 적에 현재까지 CJK의 ruby 패키지에 의존해왔다. 몇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서 새로 만들기로 하고 이를 테스트한다. luatexko에는 이미 \ruby 명령이 따로 존재하므로 주로 xetexko와 함께 쓰기 위함이다.

2. 패키지는 다음과 같이 로드한다.

```
\usepackage[<options>]{ksruby}
```

옵션은 다음과 같다.

- `rubysep=<dim>`. 기저 글자와 루비 글자 사이의 간격을 설정한다. 기본값은 0pt.
- `rubysize=<size>`. 루비 글자의 상대적 크기를 지정한다. 배수이므로 단위 없이 적어야 한다. 기본값은 0.6.
- `rubyeachchar=<true|false>`. 글자마다 루비를 다는 방식으로 식자한다. 5번 문단에서 설명한다.

3. 기본 명령은 \ksruby이다. 다른 루비 패키지를 로드하지 않았다면 \ruby 명령을 변형으로서 쓸 수 있다. 두 개의 인자를 취하며 #1이 기저 문자이고 #2가 루비 문자이다.

<pre>\ksruby{루비}{ruby} \ruby{선언}{宣言}</pre>	<pre>ruby 宣言 루비 선언</pre>
--	--------------------------

만약 CJK의 ruby 패키지를 미리 로드하였거나 luatexko가 작동하고 있다면 그 경우에 \ruby 명령은 미리 로드한 정의를 따라간다. 이 때에 \ksruby만이 이 패키지의 것이 된다.

4. \ksruby*와 같이 별표를 붙이면 글자마다 루비를 붙이는 방식으로 식자한다. 다만 이 때는 첫 번째 인자와 두 번째 인자의 글자수가 같아야 하며 만약 글자수가 다르면 별표를 붙이지 않은 것과 똑같이 식자한다.

<pre>\ksruby*{선언}{宣言} \ksruby*{루비}{ruby}</pre>	<pre>宣言 ruby 선언 루비</pre>
--	--------------------------

5. 패키지 옵션으로 [rubyeachchar]가 선언되면 \ksruby 명령은 별표를 붙이지 않아도 글자마다 식자하는 방식으로 변화한다. 문장 중에 \ksrubyeachchardefault 명령을 주면 같은 일이 일어난다.

<pre>\ksrubyeachchardefault \ksruby{선언}{宣言} \ksruby{루비}{ruby}</pre>	<pre>宣言 ruby 선언 루비</pre>
---	--------------------------

이 선언은 지역적(*local*)이므로 그룹 밖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만약 원래의 값으로 이를 되돌리려 한다면 `\ksrubyeachchardefault[false]`라고 선언할 수 있다.

<pre>\ksrubyeachchardefault[false] \ksruby{선언}{宣言} \ksruby{루비}{ruby}</pre>	<pre>宣言 ruby 선언 루비</pre>
--	--------------------------

6. `rubysep`과 `rubysize`를 문서 중에서 바꿀 수 있다. 이 때에는 `\ksrubysep`이나 `\ksrubysize` 명령을 쓴다. `\ksrubysize` 선언은 전역적(*global*)이고 `\ksrubysep`은 지역적(*local*)이다.

<pre>{\ksrubysep{5pt} \ksruby{선언}{宣言}} \ksrubysize{1} \ksruby{선언}{宣言}</pre>	<pre>宣言 宣言 선언 선언</pre>
---	------------------------

7. `\ksrubyextra`라는 특별한 명령이 있다. 이것은 루비 문자를 식자하기 시작하는 위치에 원하는 명령을 추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주로 루비 텍스트의 색상을 지정하기 위해 쓸 수 있다.

<pre>\ksrubyextra{\color{red}} \ksruby{선언}{宣言}</pre>	<pre>宣言 선언</pre>
--	------------------

이 선언은 전역적이므로 원래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는 `\ksrubyextra{}`를 선언해주어야 한다.

8. 세로쓰기에서도 원하는 대로 잘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다만 세로쓰기 시에는 `rubysep`을 조금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pre>\begin{vertical}{10em} \adhochangulfont{Noto Serif CJK KR}% [Vertical=RotatedGlyphs,% RawFeature=vertical] \adhochanjafont{Noto Serif CJK KR}% [Vertical=RotatedGlyphs,% RawFeature=vertical] \ksrubysep{-2pt} \ksruby{차}{此}를 \ksruby*{선언}{宣言}함이며 \end{vertical}</pre>	<pre>차^此 를 선^宣 언^言 함 이 며</pre>
---	--

9. CJK의 ruby보다 좋은 점이 있다면 이른바 “행 간격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pre>\ksruby*{吾等}{오등}은 \ksruby*{茲}{자}에 ↪ \ksruby*{我}{아} \ksruby*{朝鮮}{조 ↪ 선}의 \ksruby*{獨立國}{독립국}임과 ↪ \ksruby*{朝鮮人}{조선인}의 \ksruby*{自 ↪ 主民}{자주민}임을 \ksruby*{宣言}{선 ↪ 언}하노라</pre>	<pre>오 등 자 아 조선 독립국 조선인 吾等은 茲에 我 朝鮮의 獨立國임과 朝鮮人의 자 주민 선 언 自主民임을 宣言하노라</pre>
--	--

```
\linespread{2.5}
```

```
\ksruby*{我等}{오등}은 \ksruby*{茲}{자}에
```

```
→ \ksruby*{我}{아} \ksruby*{朝鮮}{조
```

```
→ 선}의 \ksruby*{獨立國}{독립국}임과
```

```
→ \ksruby*{朝鮮人}{조선인}의 \ksruby*{自
```

```
→ 主民}{자주민}임을 \ksruby*{宣言}{선
```

```
→ 언}하노라
```

오 등 자 아 조선 독립국 조선인
我等은 茲에 我 朝鮮의 獨立國임과 朝鮮인의

자 주민 선 언
自主民임을 宣言하노라

10. 일본어의 루비를 이 패키지로 완전히 구현하지 않았다. 이 패키지는 주로 한글 문서를 위한 것이다. 일본어 문서의 루비에 대한 표준은 Requirements for Japanese Text Layout에 있는데 이를 구현하는 것은 일본어 텍의 일이 아니겠는가.

11. 행나눔에 관한 메모. \ksruby 명령은 기저문자를 박스로 식자하고 그 위에 루비문자를 역시 박스로 올려붙이는 것이므로 이 명령이 적용되는 단어에서는 행나눔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그러나 \ksruby* 즉 rubyeachchar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글자마다 박스로 식자하므로 글자 끝에서 행나눔이 일어날 수 있다.

12. 변경사항:

1. v0.0.1에서 현재 식자되고 있는 폰트 크기를 자동으로 알아내어서 거기에 맞추어 루비 문자를 찍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
\small \ruby{發達}{발달}
```

```
\normalsize \ruby{發達}{발달}
```

```
\large \ruby{發達}{발달}
```

```
\Large \ruby{發達}{발달}
```

```
\LARGE \ruby{發達}{발달}
```

발달 발달 발달 발달 발달
發達 發達 發達 發達 發達

```

\ksrbyeachchardefault
\ksrbyextra{\color{blue!50!gray}}
\ruby{噫}{히}라! \ruby{舊來}{구래}의 \ruby{抑鬱}{억울}을 \ruby{宣暢}{선창}하려 하면,
\ruby{時下}{시하}의 \ruby{苦痛}{고통}을 \ruby{擺脫}{파탈}하려 하면,
\ruby{將來}{장래}의 \ruby{脅威}{협위}를 \ruby{芟除}{삼제}하려 하면,
\ruby{民族的良心}{민족적량심}과 \ruby{國家的廉義}{국가적염의}의 \ruby{壓縮銷殘}{압축소잔}을
↳ \ruby{興奮伸張}{흥분신장}하려 하면,
\ruby{各個人格}{각개인격}의 \ruby{正當}{정당}한 \ruby{發達}{발달}을 \ruby{遂}{수}하려 하면,
\ruby{可憐}{가련}한 \ruby{子弟}{자제}에게 \ruby{苦恥的財産}{고치적재산}을 \ruby{遺與}{유여}치
↳ 안이하려 하면,
\ruby{子子孫孫}{자자손손}의 \ruby{永久完全}{영구완전}한 \ruby{慶福}{경복}을 \ruby{導迎}{도영}하
↳ 려 하면,
\ruby{最大急務}{최대급무}가 \ruby{民族的獨立}{민족적독립}을 \ruby{確實}{확실}케 함이니,
\ruby{二千萬各個}{이천만각개}가 \ruby{人}{인}마다 \ruby{方寸}{방촌}의 \ruby{刃}{인}을
↳ \ruby{懷}{회}하고
\ruby{人類通性}{인류통성}과 \ruby{時代良心}{시대량심}이 \ruby{正義}{정의}의 \ruby{軍}{군}과
↳ \ruby{人道}{인도}의 \ruby{干戈}{간과}로써 \ruby{護援}{호원}하는 \ruby{今日}{금일},
\ruby{吾人}{오인}은 \ruby{進}{진}하야 \ruby{取}{취}하매 \ruby{何强}{하강}을 \ruby{挫}{좌}치 못
↳ 하라, \ruby{退}{퇴}하야 \ruby{作}{작}하매 \ruby{何志}{하지}를 \ruby{展}{전}치 못하랴.

```

噫! 舊來의 抑鬱을 宣暢하려 하면, 時下의 苦痛을 擺脫하려 하면, 將來의 脅威를 芟除하려 하면, 民族的
 良心과 國家的廉義의 壓縮銷殘을 興奮伸張하려 하면, 各個人格의 正當한 發達을 遂하려 하면, 可憐한 子
 弟에게 苦恥的財産을 遺與치 안이하려 하면, 子子孫孫의 永久完全한 慶福을 導迎하려 하면, 最大急務가
 民族的獨立을 確實케 함이니, 二千萬各個가 人마다 方寸의 刃을 懷하고 人類通성과 時代良心이 正義의 軍
 과 人道의 干戈로써 護援하는 今日, 吾人은 進하야 取하매 何强을 挫치 못하랴, 退하야 作하매 何志를 展치
 못하랴.